

코로나19 확진자 의무격리 기간 5일로 단축

방대본,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발표 위기경보 1단계 하향...통계, 일일→주간 변경 2단계 마스크·격리 의무 해제...“7월 정도 예상” 내년 상반기쯤 완전한 엔데믹...독감처럼 관리

정부가 오는 5월 초부터 7월, 내년 상반기까지 3단계에 걸쳐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하고 방역 수위와 지원을 축소하는 '엔데믹'(풍토병화)을 추진한다.

먼저 5월 초중 1단계로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할 경우 확진자 의무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 7월경 2단계 조정 시점에는 마스크·격리 의무를 모두 해제하며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해 대부분 일반의료체제로 전환하며, 3단계는 완전히 독감(인플루엔자)처럼 관리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지명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9일 오전 청주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3단계에 걸쳐 코로나19 일상회복을 추진한다.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나뉜다. 국내 유행 첫 해였던 2020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유지됐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내달 말 또는 5월 초 코로나19에 대한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국은 5월11일 비상사태 해제를, 일본은 5월8일 코로나19를 5류 감염병으로 하향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이 시기에 맞춰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1단계로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할 것인지 결정한다.

'경계'로 하향되면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아 범부처로 대응하던 중대본

은 해체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사고수습본부에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유지된다.

1단계 하향 조정 시점에는 격리의무는 유지되나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발표하던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는 주간 단위로 전환한다.

이 경우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 현재 국회에서는 6월경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이후에도 코로나19 유행이 추가로 안정될 경우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주의'로 2단계 조정을 추진한다.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도 현 2급에서 독감과 같은 4급으로 하향한다. 2단계에서는 중수분을 해제하고 마지막으로 질병청 방대본이 대응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 등에 유지 중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물론 확진자 격리 의무도 해제된다. 코로나19 확진자도 다른 호흡기감염병처럼 표본감시 체계로 바뀌며 주 1회 코로나19 검출률과 추이 등을 발표하게 된다.

코로나19 의료대응도 일반의료체제로 편입되면서 검사비와 치료비가 부분적으로 유료화된다. 각 보건소가 운영하던 선별진료소도 운영을 중단하고 의료기관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는 체계로 바뀐다. 다만 감염취약층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등으로 지원을 유지한다. 입원치료비도 중증환자에 한해서만 일부 지원한다.

코로나19 백신접종 비용은 올해까지는 무료로 지원되지만 3단계에서는 독감처럼 고위험군 중심으로 국가필

항목	1단계			2단계			3단계		
	현행	위기단계 하향 심각-경계	감염병 등급 조정 2급-4급	엔데믹화 이후					
마스크	감염취약시설 입소형, 의료기관-약국 유지	권고 전환	권고 전환	엔데믹화 이후					
격리	확진자 7일 - 선별진료소 - 임시선별검사소 PCR - 의료기관 PCR/RAT	확진자 5일	권고 전환	엔데믹화 이후					
검사	입국후 3일차 PCR 권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중단 입국후 3일차 PCR 권고 종료	선별진료소 종료	엔데믹화 이후					
검역	입국후 3일차 PCR 권고	입국후 3일차 PCR 권고 종료	건강상태 질문서 유증상자 제출	검역관리지역 해제					
감염취약 시설	중사자-입소자 선제검사	입소시 선제검사	입소시 선제검사	엔데믹화 이후					
병상	지정병상 (상시+한시)	한시지정병상 축소 상시병상 중심	병상지정 환자 배정 종료	엔데믹화 이후					
재택 외래	원스톱진료기관 운영 재택치료 지원	원스톱진료기관 운영 재택치료 지원	일반의료체제 전환	엔데믹화 이후					
검사비	우선순위 PCR 무료 의료기관 RAT 무료	감염취약층 등 일부 건보 지원	감염취약층 등 일부 건보 지원	엔데믹화 이후					
입원 치료비	전체 입원환자 지원	중증환자에 한해 일부 지원 유지	중증환자에 한해 일부 지원 유지	엔데믹화 이후					
생활지원 유급 휴가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사자 30인 미만 기업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사자 30인 미만 기업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사자 30인 미만 기업	엔데믹화 이후					
치료제	정부 일괄 구매 우상장급	정부 일괄 구매 우상장급	정부 일괄 구매 우상장급	엔데믹화 이후					
예방 접종	누구나 무료접종	누구나 무료접종	누구나 무료접종	엔데믹화 이후					

확진자 격리의무가 유지될 때 소득 기준·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급하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도 종료된다.

지 본부장은 "2단계 조정 시 코로나19가 일반의료체제로 편입되기 때문에 의료계와 지자체 준비기간으로 2~3개월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5월 초 1단계 조정을 한다던 한 7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3단계는 완전히 풍토병처럼 바뀌는 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방대본도 해체하고 질병청이 다른 감염병처럼 관리하게 된다. 3단계 조정 시점은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비용은 올해까지는 무료로 지원되지만 3단계에서는 독감처럼 고위험군 중심으로 국가필

수예방접종으로 전환돼 접종 대상이 아닌 경우 유료화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치료제도 유료화돼 일부 건보로 지원된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 팀장은 "3단계는 완전한 엔데믹은 올해 안에는 힘들고 빨라도 내년은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위기경보 하향 이후 유행이 크게 확산할 경우에는 실내마스크 한시 의무 전환, 임시선별검사소 재설치, 병상 추가 확보, 검역 강화 등 방역 수위를 다시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 본부장은 "경계"로 하향한 이후 지난해 여름철 유행 규모를 상회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흥경찰, 어린이 교통안전 및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실시

고흥경찰서(서장 장승명)는 개학기를 맞아 지난 29일 고흥초등학교와 고흥여자중학교 앞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및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광주 남부소방, 골든타임 확보 위한 자율구급단 운영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남수)는 응급환자 발생 시 최초 발견자의 적절한 응급처치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자율구급단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강진소방, 건설현장 대형화재 예방위한 현장방문 안전컨설팅

강진소방서(서장 최기정)는 28일 강진군 군동면에 위치한 강진푸소센터 건설현장을 방문해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담양소방, '불 하트'챌린지 자제 당부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최근 유행 중인 '불 하트' 챌린지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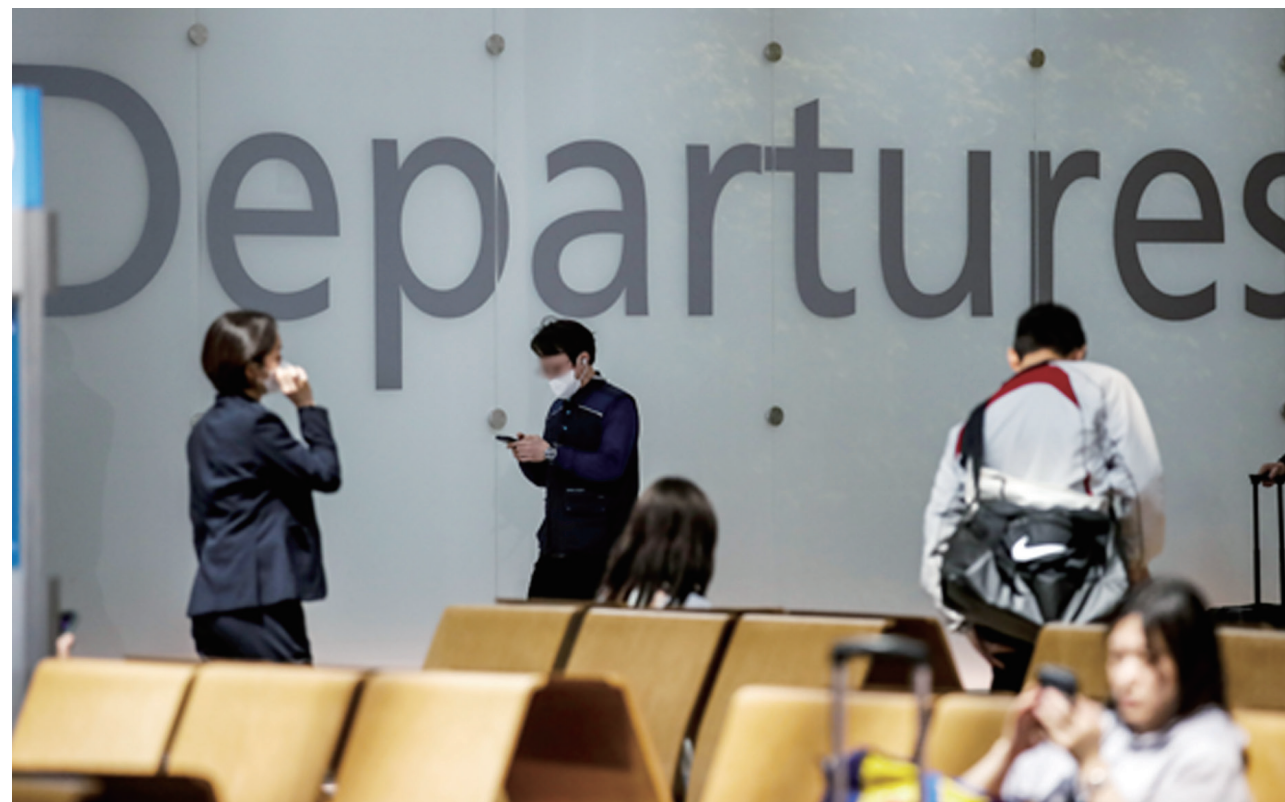
여수소방, 여수국가산단 화재 등 안전관리 강화 위한 간담회

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29일 여수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여수국가산단 화재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 기자



완도해경, 깨끗한 바다를 위한 방제협력 강화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기정)는 지난 24일 완도해경 관할 내 유관기관, 단·업체 관계자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완도지역 방제대책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고 전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일본 등 22개국 대상 여행허가 면제, 해외 관광객 유치 29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내수 활성화를 위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일본·대만 등 22개국 외국인에 대해서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중국·동남아 관광객이 한국에서 무비자로 환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방안을 발표했다.

종교시설서 만난 여신도 성폭행 시도·폭행한 40대 구속

출소 이후 종교시설서 여성 신도와 친분 쌓아

종교시설서 친분을 쌓은 여신도가 잠든 틈을 타 성폭행을 시도하고 때린 40대가 구속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9일 여신도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때린 혐의(중강간상해)로 A(4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주말인 지난 26일 오후 4시

께 광주 남구 자신의 집에서 여성 신도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다.

A씨는 범행 당일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시던 B씨가 잠들자 성폭행하려 했다. A씨는 인격적임을 느끼고 B씨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마구 때렸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상해 관련 전과로 복역하다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출소 이후 종교시설을 다니며 알게 된 신도 B씨와 친분을 쌓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체 일부만 만졌다"면서도 혐의는 일부 부인했다. 법원은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이슬기자



"이게 5만원어치?" 지역 축제 '바가지'

봄나들이 인파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축제를 방문했다가 '바가지 요금'을 경험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진해군 항제 장터 시장 음식 가격'이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다. 작성자는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 사진과 함께 "저희 손대지 않고 찍은 사진이다. 저 돼지 바비큐가 무려 5만원"이라며 "심각하지 않느냐. 밑에는 심지어 양배추도 많이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작성자가 올린 식당의 메뉴판 사진에는 통돼지 바비큐 5만원, 삼겹·쪽갈비 5만원, 해물파전 2만원, 순대야채볶음 3만원, 골뱅이무침 3만원 등의 가격이 적혀 있었다. 작성자는 "향토음식관인 한테 가격은 거의 다 동일한 걸로 알고 있다"며 "아무리 눈통이(바가지)를 맞으러 가긴 했지만 이 정도는 심하지 않나"고 호소했다.

이에 다수의 네티즌은 공분을 터뜨렸다. "음식이 너무 형편없다. 바가지로 볼 수밖에 없는 가격이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4년 만에 개최된 축제이니 예상할 만한 일이었다고 본다"는 반응도 잇따랐다.

뉴시스